

주간 총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오늘, 공동의회 개최

일시: 12월 24일(주일) 3부 예배 후, 본당

대상: 본 교회 무흠입교인

안건: 2023년 수입·지출 결산보고 및 2024년 수입·지출 예산(안)

* 오늘 교구 모임은 쉽니다.

* 교구별로 금요집회시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예배

일시: 12월 25일(월) 1부(09:00), 2부(11:00)

장소: 본당

* 교회학교 부서별 예배는 없고 온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2024년 찬양대원 및 오케스트라대원 모집

* 자세한 사항은 8면 참고

2023년 은퇴 감사 예배

일시: 12월 29일(금) 금요집회 시 장소: 본당

대상: 2023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자

* 은퇴자 명단은 6면 참조

총현 주일 주차시스템 변경

시행일: 2024년 2월 4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6면 참조

주일 1부 예배 장소 변경

본당 1,2층 사용 → 본당 1층 사용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존재하기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며,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을 전해준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육신의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오신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잇대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시간 변경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변경전	변경후	
	주중(월~금)	05:30~06:00
05:00~05:30	토, 주일	06:30~07:00

새벽기도회시 리딩 지저스 말씀 활용

리딩 지저스 핵심장 안에서 새벽기도회 본문을 선정, 주간 총현에 게재하여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로마서 8장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설교: 한규삼 담임목사

일시: 2024년 1월 8일(월)~12일(금) 5시 30분

장소: 본당

2024년 총현교회 사역훈련 제6기 사역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기간: 12월 31일(주일) 까지

- 남사역반 ① 주일반 (16:30~19:00) ② 목요일반 (19:00~21:30)
- 여제자반 ① 수요일반 (14:30~17:00) ② 목요일반 (19:00~21:30)

2024년 총현교회 제7기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 1부, 배우자 동의서 1부를 작성한 후 제출
신청 및 모집: 12월 24일(주일) 까지

모집안내

1. 남제자반

- ① 주일 16:30~19:00
- ② 목요일 19:00~21:30

2. 여제자반

- ① 화요일 10:00~12:30 ③ 목요일 10:00~12:30
- ② 수요일 14:30~17:00 ④ 여제자 65+반 (수 14:30~17:00)

3. 여직장인반

- ① 화요일 19:00~21:30
- ② 토요일 10:00~12:30

지난 주일(12월 17일) 설교 되새기기

기다림의 사람, 세레 요한

(요한복음 3:26-30)



대강절을 맞이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인 '기다림'은, 하나님의 방문 하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집을 방문 하듯, 인간을 방문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지만,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딤후 2:13)”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마침내 사람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 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 11:11)” 예수님께서 세레 요한을 가리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주님 품에 안겼던 운동주 시인처럼, 세레 요한은 인류 역사를 구분하는 기원전(B.C.)과 기원후(A.D.)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두 시대의 교차점에 서서 기다렸던, 세레 요한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더욱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

세레 요한으로 대표되는 옛 시대와, 그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해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도 여러 차례 나타나셨던 성령님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로 오셨기에, 성령님은 새로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눅 1:35)”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성경 구절 중 가장 은혜로웠던 부분은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덮었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덮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레 요한은 그의 출생부터 특이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요한의 아버지(사가라)가 순번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렸습니다.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눅 1:15-17)” 태어날 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예언에 사가라는 두려워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리던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두려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받은 정조로 말을 못하게 된 사가라의 입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명명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라의 기다림과,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다림 가운데 태어난 세레 요한의 인생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기다림, 증거하는 시간

세레 요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성도로서, 남은 인생의 길이와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잘 기다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오시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성도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 각처에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며, 기다리는 시간동안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더욱 성숙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레 요한은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 시간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을까요?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레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쭙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눅 7:20)” 세레 요한은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이(메시아)’이신지를 질문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이’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며, 그 제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기에, 자신의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레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레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비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축복을 받게 되는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신랑의 친구로 서서 기뻐하는 자

세레 요한의 기다림과 증거하는 삶 가운데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조연이라는 역할에 만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연극이나 영화에서 조연의 뛰어난 활약으로 말미암아 작품이 더 살아나는 경우가 있듯, 세레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함에 평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조연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29절)” 세레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신랑의 친구로 서서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이를 뜻하는 신부나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님에도 그는 기뻐하는 사람이었으며, 결코 신랑이 되고자 하거나 신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레 요한의 마음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0절)”에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흔히 이 말씀을 ‘그가 흥함에 따라 나도 흥하여야 하겠다’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보물처럼 담아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불식시켜야 할 오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쇠한다는 말은 썩거나 낡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비하여 작아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헛된 것으로부터 부풀려진 우리의 모습이 작아지고, 스스로 높아진 우리의 모습이 적절한 수준으로 내려오게 됨을 가리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히 2:7)” 잠시 예수님을 천사보다 낮게 하셨듯 우리의 자아가 낮아지게 됨이 바로 쇠함입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역사를 소망함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도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묘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레 요한이 기다리며 준비했던 한 시대를 우리는 이미 맛보았으며, 동일한 기다림 가운데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로서는 증거의 삶을, 교회적으로는 선교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음으로 우리의 증거가 더욱 선명해지고, 증거하는 이로써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루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John the Baptist, the Man of Waiting

(John 3:26-30)

Rev. Kyu Sam Han

'Waiting', the theme we share celebrating the Advent is waiting for God's visit. God planned to visit humans just as parents visited their children's houses, however, He waited until the proper time was fulfilled.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Titus 2:13)" By Jesus' coming to this earth, humans were eventually visited by God. "Assuredly, I say to you, among those born of women there has not risen one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but he who is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is greater than he.(Matt 11:11)" Jesus referred to John the Baptist as the greatest prophet among all the prophets in the Old Testament. However, like the poet Yoon, Dongju, who was embraced in the bosom of the Lord when no less than a few months left before the independence, John the Baptist could not see in perso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who became the norm for dividing human history into before Christ(B.C.) and Anno Domini(A.D.). That's why waiting of John the Baptist, who waited at the intersection of two eras can become a greater lesson to us.

Old era and new era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ld era which is represented by John the Baptist and the new era which he did not experience? There can be a variety of points of view, but if they were to be summarized into one, 'the exercise of the Holy Spirit' can be selected. In the beginning was, and in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appeared several times the Holy Spirit, but particularly, since Jesus came as the Comforter after Jesus came to this earth, died, resurrected, and ascended to heaven, the Holy Spirit is the trait of the new era. "And the angel answered and said to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Highest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also, that Holy One who is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Luke 1:35)" The most gracious part of phrases in the Bible which we meditated on over last week was the sight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I hope you experience tha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overshadowed Mary will overshadow our community and our neighbors. John the Baptist who was born six months before Jesus was born was extraordinary from his birth. When John's father who was a priest(Zechariah) offered sacrifices to God while his division was on duty, Gabriel the angel appeared and announced a son would be born to him. If the age of John's mother Elizabeth is considered, it was not easy to imagine. "For he will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shall drink neither wine nor strong drink. He will als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ven from his mother's womb. And he will turn many of the children of Israel to the Lord their God. He will also go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just,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Luke 1:15-17)" Zechariah was frightened by the prophecy that a son to be born would be full of the Holy Spirit and in charge of turning others to the Lord. It's because no matter how eagerly I have been waiting for something to happen, I may be afraid if it actually happens to me. The mouth of Zechariah who could not speak as a sign that he had received a prophecy could be eventually opened when he called his son's name John. The life of John the Baptist who was born in his father Zechariah's and his mother Elizabeth's waiting was that of preparing for the coming of Jesus.

Waiting, witnessing time

John the Baptist did his best to prepare and wait for the coming new era by witnessing Jesus. I bless that you, as saints, live lives of waiting well Biblically regardless of the length of the rest life. Concerning the reason that Jesus who said he would come soon did not come again for over two thou-

sand years, the Bible says it is to give saints time to witness. It is to spread the gospel to the nations that do not know Jesus yet in every place throughout the world, and during the waiting time, God allowed them the opportunity to repent and mature more to become the people of the Heavenly Kingdom. If so, how did John the Baptist testify to Jesus during the time he waited and prepared for? "When the men had come to Him, they said, "John the Baptist has sent us to You, saying, 'Are You the Coming One, or do we look for another?'(Luke 7:20)" John the Baptist testified to Jesus very clearly. John the Baptist sent two of his disciples, Peter and John, to Jesus and made them ask if 'he is the one who is to come(Messiah)'. Jesus verified he was 'the one who was to come' by showing them the sight that the sick were healed, and the poor restored. Because it is natural to love and care for disciples and to wish to be with them as a teacher, it is never easy for a teacher to send his disciples to others. Nevertheless, the reason that John the Baptist could send his disciples to Jesus was because he focused on a life of witnessing Jesus. The one who witnesses Jesus like John the Baptist is surely needed not only when Jesus ministered on this earth but also even today. I hope you and I, not anyone else, become blessed saints who are waiting for Jesus' coming and change the waiting time into the time to testify to Jesus.

The one who stands and rejoices as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Another trait revealed in the life of waiting and witnessing of John the Baptist is that he was satisfied with the role of a supporting actor. Just as there are often cases in which outstanding performances of supporting actors make the works more alive in movies or dramas, John the Baptist offered his own heart to witnessing Jesus during his life and gladly took charge of the role of a supporting actor. "He who has the bride is the bridegroom; but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who stands and hears him, rejoices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Therefore this joy of mine is fulfilled.(v.29)" John the Baptist referred to himself as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who stands and rejoices'. Even though he was not the bride nor Jesus the bridegroom meaning the one who received a testimony from him, he was a man of joy, and he never tried to become the bridegroom or take the place of the bride. This heart of John the Baptist is revealed better in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v.30)" This statement is often misunderstood as 'As he must increase, so must I increase.' I hope you can contain this word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in your heart as a treasure. However, there is one more misconception to be dispelled in this word. This is not the saying which means that 'he must increase and I must be destroyed'. The word 'decrease' does not mean rotting or becoming worn out but refers to becoming smaller than before. Therefore, it indicates that our self-inflated appearance becomes small, and our self-enhanced appearance comes down to a moderate level. "You have made hi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You have crowned him with glory and honor, And set him over the works of Your hands.(Heb 2:7)" Just as Jesus was made lower than the angels for a little while, the lowering of our ego is the decrease. I hope you remember there is a silver bullet of God that even though we are feeble, by wishing for the work that Jesus must increase, we also eventually increase. We have already tasted an era that John the Baptist waited and prepared for, and we are waiting for the appearance of the one amid the same awaiting. I bless that during the period, by being used to spread the gospel to the end of the earth through a life of witnessing as saints, and through a life of missionary work as churches, our testimony becomes clearer, and we are transformed as witnesses to accomplish God's anticipation.

영역·이울의

중보기도 헌신자 간증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자주 “예수 선생님!”하고 은밀하게 부르곤 합니다. 저는 예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싶습니다. 종으신 스승, 예수님은 저를 참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분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깊은 침묵으로 깨닫게 하시며, 다정한 속삭임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 최고의 가르침은 그 분의 생애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생을 보면 가르침의 핵심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중보의 생애입니다. 죄 많은 제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중보의 진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중보를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기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 삶에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깊이 고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제가 택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중보기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의 믿음의 벗들과 소그룹 중보 모임을 만들어 기도하면서 교회에 중보기도부가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중보기도부원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 등록했습니다. 1기 훈련에는 인원 제한이 있었기에 자칫 늦게 등록하여 중보기도 팀에 합류하지 못할까 조바심을 낸 것이지요. 훈련을 마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자라는 이름표를 공손하게 받아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자격증도 없이 감히 중보기도부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헌신이 아닌, 당연한 일상이어야 하기에, 헌신자라 불리는 사실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잠시 묵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중얼거리는 듯 보였던 한나처럼 기도하다보면, 일상 중에도 품고 있는 중보기도카드가 불쑥불쑥 눈 앞에 펼쳐집니다. 부족하지만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에,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수북하게 쌓인 기도 요청 카드 앞에서 가끔은, 기도요청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기도’ 하라고 이토록 무수한 기도 제목을 공급하시는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기도요청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은밀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는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의 비전을 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확연히 보입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은 우리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외 여러 교회는 물론 바다 건너 다양한 선교지를 기도로 품고 있습니다. 해외의 교포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긴급 기도요청이 착신되면 전도사님께서 즉각 중보기도부의 단톡방에 올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이백여 명의 기도부원들은 기도요청 알람이 울리는 바로 그 순간에 전장의 용사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 표어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양처럼, 무수한 누군가가 저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마땅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실천에는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공간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순간 이동의 기적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몸으로 절규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 달째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이 단 하루만이라도 깨어나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불치병이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두벅두벅 다가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젊은 형제가 있습니다. 10번의 배아 이식에 실패하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자매도 있습니다. 재정의 파탄으로 한 끼 밥을 굶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람 간의 갈등으로 피폐해진 성도가 있고 마음의 상처로 가슴이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1기 정연희 권사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부가 생긴다는 소식에 설레고, 기대하며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중보기도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도, 세상도 멈춘 것 같았지만 중보기도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교회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중보기도부에서도 그동안 나누었던 은혜들을 ‘기도밖에 없었어요’ 라는 책으로 묶어서 조금이나마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책 편집작업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 카드를 들고 울었던 날들, 그리고 응답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오면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였던 시간들... 끝내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서는 순종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정말 큰 일, 갑작스런 문제를 만나면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당황하고 두렵게 되는데,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했었다고 긴급기도를 내셨던 성도님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고백들을 하십니다

2005년도에 남편이 암 선고를 받고, 3개월 만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 때 일이 생각났기에 그들의 고백에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막상 살 가망이 없다는 절망의 말을 들으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제일 든든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마디의 기도가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었고, 열심이였으나 막상 병에 걸리니까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두번 다녀가고는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중보기도부가 생기니까 너무나 좋고 힘이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중보기도에 헌신하고 있는 기도자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님들이십니다.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품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충현교회에 중보기도부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부를 섬길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1기 황경분 권사



서리집사 임명식



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자연스럽게 봉사했던 지난 날의 시간들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받아왔던 여러 섬김들을 기억하여 먼저 본을 보이며 모범적인 직무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임명식에 나아갔습니다. 서리집사 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주신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 함께 있는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직분의 차이가 아닌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 받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청년2부 박지윤 집사



집사 직분을 받는게, 교회에 얽메인다는 생각이 들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팔 선교를 다녀온 후로 말씀의 동역자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집사 직분은 주님의 큰 선물이며, 교회에서의 역할을 정해주신거라 생각합니다. 선교에서 느꼈던 동역자와 공동체를 위해 제가 봉사 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주신거라 생각합니다. 주신 역할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삶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3부 윤종문 집사



청년 점프업(Jump Up) 프로젝트 협약

충현교회와 강남구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교육 제공을 통해 사회진출을 앞당기는 '청년 점프업(Jump-Up) 프로젝트'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일자리 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강남구는 4차산업 분야 취창업 교육, 인턴십 지원, 1:1 멘토링, 청년 스타트업의 사업화 과정 지원, 청년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충현교회가 계속해서 민간 협력으로 대사회적 섬김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은퇴자 명단

장 로 (7명) 임창식 (800101) 신광철 (830731) 이성섭 (23961)
대수 순 장철규 (8302741) 박재현 (92017431) 최현구 (2002002861)
 남용승 (8007551)

안수집사 (18명) 김기홍 (8307071) 김용숙 (810611) 김정익 (93012631)
가나다 순 박옥현 (9405231) 신용봉 (2018000331) 이광국 (8206001)
 이대길 (6631) 이수길 (9101831) 이승준 (2019000331)
 이정태 (870851) 임춘균 (49221) 장경수 (8207941)
 정구익 (8505141) 정문호 (8402471) 정성구 (2017001731)
 조문수 (8401521) 지정록 (89010731) 황인주 (8909201)

대상자 : 1953년 생
 은퇴식일정 : 12월 29일(금) 금요일집회 시

권 사 (66명) 강영애 (8007342) 강영자 (8708312) 강태연 (92011502) 고정순 (9004781) 권정자 (850432)
가나다 순 김명희 (5522) 김보옥 (860452) 김숙자 (8904162) 김순연 (8007552) 김영순 (8208252)
 김영옥 (5162) 김영혜 (8603642) 김옥희 (20761) 김일순 (53462) 김재남 (8806851)
 김재순 (34652) 김정옥 (9204881) 김학희 (8406202) 김현미 (23552) 김형미 (9002561)
 김희수 (95015432) 김희숙 (43602) 노승연 (8707311) 문금안 (89015331) 박복숙 (9106852)
 박복순 (50711) 박성남 (9202082) 박숙희 (8207391) 박영순 (8202422) 박영희 (920622)
 박옥순 (2006001092) 박옥자 (9104571) 박차화 (8102962) 박희수 (9603272) 백광자 (8409131)
 성경미 (930822) 성지현 (8606112) 송계월 (91011122) 오혜옥 (93017932) 윤명자 (48261)
 윤숙상 (9304401) 윤영희 (9409882) 이강해 (9106291) 이경희 (2006003781) 이명희 (9502322)
 이성숙 (8109011) 이소규 (48132) 이수자 (8504322) 이숙희 (8601252) 이영희 (8201371)
 이정애 (99010192) 이혜주 (9106932) 임태수 (2003000662) 정금숙 (2000000321) 정미자 (8003661)
 정영숙 (820391) 차영신 (8703522) 최금실 (23962) 최선자 (92016542) 한기희 (92013262)
 한애현 (8004652) 허정숙 (9106462) 현경남 (8907432) 홍은기 (8908252) 황경분 (2002003451)
 황향 (93018511)

2월부터 주일 주차시스템이 변경됩니다

※ 주일 ‘종일주차’와 ‘일시주차’로 바뀝니다!

매주일 본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 차량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이용시간에 따른 구역으로 재편하여 효율적인 운용으로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1. 주차구역 구분 및 스티커 부착

가. 종일주차구역 지정 : 주일에 아침부터 계속 주차하는 차량

- 1) 주차대상 : 아침 09:30 이전부터 ‘찬양예배시간’ 또는 이후까지 주차하는 차량
- 2) 주차구역 : 본당 지하2층 주차장, 제2교육관 지하1-4층 주차장 - 초록색 주차장 (초록색 주차스티커 부착차량)

나. 일시주차구역 지정 : 종일주차 제외차량

- 1) 주차대상 : 종일주차대상 시간 외 주차하는 차량
- 2) 주차구역 : 지상주차장, 본당 지하1층 주차장, 기타 - 주황색 주차장 (주황색 주차스티커 부착 차량)

※ 대상차량에 해당구역 스티커부착 : 주일에 해당 주차구역에만 주차가능 (주차스티커 제작 후 지급)

2. 대중교통 및 카풀이용 캠페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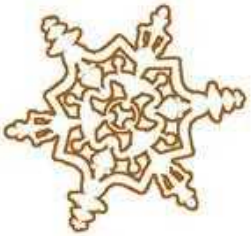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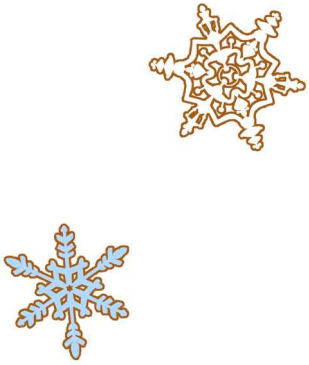
- 가. 교회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 또는 대중교통이 용이한 분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나. 같은 교구 또는 지역의 경우 카풀이용을 권장합니다.

3. 성도님들이 협조할 사항

- 가. 차량에 주차스티커(초록 또는 주황)를 반드시 부착합니다.
 - 1) 주차스티커에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2) 해당 주차구역(초록, 주황)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나. 차량안내봉사자의 안내에 잘 따라주세요.
- 다. 통로 주차 시 사이드를 채우지 마시고, 예배 후 곧바로 이동해 주세요.
- 라. 주일 아침에 시간대별로 주차장을 오픈하오니 양해바랍니다.

4. 시행일 : 2월 4일부터 시행 - 문의 : 차량안내부장(신현옥장로) 010-3137-0879

< 총회교회 봉사위원회 차량안내부 >



순장 감사 에세이

신앙생활을 한지 50년이 지났고, 충현교회에서 31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동안 세상 일에 쫓겨 예배만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봉사와 섬김에 일에는 여러 가지 핑계로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임하게 되었고, 결국 순장의 자리까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부담감이 크고, 저의 연약함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순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다 보니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은혜도 더욱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뿐 아니라 순원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 속에서 지난 1년간 순장의 직분을 감당해왔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순원으로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2024년도에도 저와 우리 권사님들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4교구 김미경 순장

금년 한 해 순모임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돌보신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순의 순모임은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주일 교구 모임 후 만나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 중 1회는 Zoom을 통하여, 1회는 야외 순모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평소 야외 나들이의 기회가 부족한 80대 중반의 순원들이 많아, 저와 2019년 순전도 때 순원이 되신 최재민 집사님이 선뜻 운전 봉사를 해주셔서 서울 근교로 나가 순모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1년 이길구 권사님의 순전도로 순원이 되신 이화순 성도님은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양성부를 거쳐 금년에 세례 교인이 되셨습니다. 순모임을 통하여 교회에 등록하셨기에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2년에는 순원 중 4명만 성경 통독에 참여하였지만 금년에는 9명의 순원 모두가 성경통독에 참여하여 모두 완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순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순장이지만 언제나 기쁘게 따라주시는 가족 같은 저희 순을 정말 사랑합니다.

6교구 정정임 순장

모임 순장과는 환경과 여건이 여러모로 다른 심방순장이라는 직분을 받고 제게 맡겨진 순원들의 명단을 바라보며 제가 어떻게 순원들과 주 안에서 교제하며 소통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기도 어렵고,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는 순원들도 있다 보니 어렵고 소통이 되지 않아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지만, 반갑게 전화 받아주는 순원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힘을 내곤 했습니다. 순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으며, 또한 저에게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게 맡겨 주신 순원들이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원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선하심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맡은 직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9교구 이해정 순장

먼저 하나님께서 귀한 부부순을 허락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부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시고, 매주 주시는 말씀과 그룹 Q&T나눔을 통하여 저희를 각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진리를 서로간에 나누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경험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순모임을 사모하며, 여러 관련 말씀과 참고 자료로 순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 순원분들과, 어려운 말씀과 나눔의 제목들에 놀랍게도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믿음의 선배도 주시고, 간절함으로 가정에 닿치는 여러 기도제목들을 눈물로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가운데 간증으로 삶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한 믿음 안에, 한 지체가 되도록 저희 부부순을 조율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매주 1시간이 넘는 순모임 시간을 온전히 지켜주시며, 여러 중요한 일정까지 변경하며 순모임에 참여해 주신, 믿음과 사랑의 가족되어 주신 모든 순원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교구 부부순 (다섯 가정) 홍탁성 안수집사, 최경애 권사

먼저 하나님께서 귀한 부부순을 허락해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하게 하시고
매주 주시는 말씀과 그룹 Q&T나눔을 통하여 저희를 각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진리를 서로간에 나누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경험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순모임을 사모하며, 여러 관련 말씀과 참고 자료로 순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 순원분들과, 어려운 말씀과 나눔의 제목들에 놀랍게도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믿음의 선배도 주시고, 간절함으로 가정에 닿치는
여러 기도제목들을 눈물로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가운데 간증으로
삶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한 믿음 안에 한 지체가 되도록 저희 부부순을 조율해 주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 매주 1시간이 넘는 순모임 시간을 온전히 지켜주시며,
여러 중요한 일정까지 변경하며 순모임에 참여해 주신, 믿음과 사랑의
가족되어 주신 모든 순원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교구 부부순 (다섯 가정)

최경애, 홍탁성

2024년 찬양대원 및 오케스트라대원 모집

2024년도 충현교회 찬양대원 및 오케스트라대원으로 섬길 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자격: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찬양에 은사가 있으신 분

신청기간: 2023.12.17(주일) ~ 12.31(주일)

문의: 찬양위원회 간사 (☎ 02-552-8200 내선 261, 010-2303-1063)

모집찬양대	구 분	예배담당	연습시간	비 고
	임마누엘찬양대	주일 1부예배	토 11:00 / 주일 07:15	
	할렐루야찬양대	주일 2부예배	토 10:00 / 주일 09:00	
	아멘찬양대	주일 3부예배	토 10:00 / 주일 10:30	
	벤엘찬양대	주일 찬양예배	주일 13:00	
	호산나찬양대	수요 1부예배	수 09:10	여성찬양대
	예루살렘찬양대	금요집회	금 17:30 / 주일 13:00	65세 이상

교회 공사관련 통행제한 안내

1. 본당 지하층 주차장 공사

일정: 2023.12.11.~ 2024. 1.16

본당 지하2층은 사용가능(통행은 본당 내부계단, 선교관 지하계단, 교회외곽 인도 이용)

2. 제1교육관 엘리베이터 공사

일정: 11인승 교체(2023.12.14 ~ 2024. 1.12) 16인승만 사용가능

16인승 교체(2024. 1.12 ~ 2024. 2. 8) 11인승만 사용가능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교우 여러분의 많은 이해바랍니다.

예배 담당(12/27~12/31)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12/27	수요 I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창 13:14-18) 박동진 목사	문진호	김미숙
12/29	금요집회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벧후 1:2) 박영환 목사	정석훈	
12/31	주일 I	눈가림 하는 인생을 거부합니다. (엡 6:5-9)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박재현
	주일 II		박영환	임창식
	주일III		권순동	최현구
	주일찬양	참 자비, 예수 그리스도 (요 5:1-10) 김승래 목사	이다현	김기완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12/25~12/31)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25 (월)	이성환/송현덕	빌 3:12-21	전교인
26 (화)	이다현/이보신	빌 4:1-23	전교인
27 (수)	임진실/최홍섭	시 95:1-11	전교인
28 (목)	권혁근/곽현구	시 96:1-13	7교구
29 (금)	위안복/설 용	시 97:1-12	4교구
30 (토)	남성경/남성경	시 98:1-9	전교인
31 (주)	김상래/김상래	시 99:1-9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집회 강사: 신경철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1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1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에스다홀(제3교 201호)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교실(제1교 702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예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 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CHOONG HYUN Church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170	김범준	영아부	
2	2171	김리아	-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2172	이재영	기본과정	김영아,전진서
2	2173	김유미	기본과정	
3	2174	이승택	기본과정	
4	2175	김인이	기본과정	김선자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출 산

1. 양현구 집사, 유원주 집사(청년3부) / 출산, 딸, 12월 14일

결 혼

1. 이승훈 군(이경환 장로·윤희 권사의 아들, 6교구)과 이실비아양(이활 타고 집사·윤현숙 타고 권사의 딸) / 12월 30일(토) 13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 센터 무궁화홀

별 세

1. 송기홍 은퇴장로(정운순 은퇴권사의 남편, 7교구) / 14일 별세, 18일 장례
2. 조경희 타고은퇴권사(황국주 집사의 모친·이인순 권사의 시모, 1교구) / 18일 별세, 20일 장례
3. 장금엽 성도(최봉환 집사의 모친·지은자 집사의 시모, 6교구) / 18일 별세, 20일 장례
4. 이명형 성도(박금자 명예권사의 남편, 8교구) / 20일 별세, 22일 장례